

광주 도철2호선 1단계 공사 8월 첫 삽

시, 기재부·국토부와 총 사업비 등 행정절차 마무리 수영대회 폐막 후 기공식...상반기 착공 공약 물거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1단계 착공과 함께 공사가 본격화된다. ▶관련기사 3면

1단계 착공 시기는 수영대회가 끝나는 8월 18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수영대회 기간 착공을 피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긴 했어도, 이 시점이 애초 약속했던 올해 상반기 착공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스 대회 폐막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한 총사업비는 2조1,761억원(국비 1조3,57억원, 시비 8,704억원)으로 애초 2조579억원과 비교해 1,182억원이 증액됐다. 2016년 12월 실시한 기본설계 이후의 실시설계 결과와 불가 및 지가 상승분 등이 반영됐다.

이 시장은 "최대 난관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지난 3일 완료했다"며 "총사업비에 이어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지난 13일 마무리함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적 준비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오는 2023년 완공

을 목표로 추진된다.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금호지구, 월드컵경기장, 백운광장, 조선대를 지나 광주역까지 총연장 약 17km 구간이며, 정거장 20곳과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된다.

공사발주는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업체와의 상생, 복합공정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6개 공구로 나눠 이뤄진다.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호선 건설공사 시 지역민 고용,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와 장비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부실 없는 안전한 공사를 위해 안전·품질·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대책 컨트롤타워인 교통처리 특별대책단을 구성, 교통혼잡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구축, 난공사 예상 구간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시 차원의 종합교통대책 등을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거쳤다.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이어 국토교통부와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한 뒤 지난 14일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 계약을 의뢰했다.



19일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지역 대부분을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대중교통 시

스템이 구축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복지, 친환경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한전 적자속 한전공대 재원마련 '속얇이'

'마스터플랜' 8-9월 또다시 연기 6월 확정돼야 2022년 개교 순항

한전이 빚가림혁신도시에 한전공대설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적자 논란속에 정부 지원안 마련도 지연되면서 재원마련에 속얇이를 하고 있다. 특히 한전공대설립 기본안인 최종 '마스터플랜용역안'이 상반기내 확정이 불투명해지면서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대학설립 기본계획과 향후 운영계획, 건축설립 기본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 최종 마스터플랜 용역안이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연기되면서 오는 8-9월까나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당초 이달말까 조감도가 포함된 구체적인 캠퍼스 건축안과 학사운영 방안 등이 담긴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확정안은 지난해 12월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기된 데 이어 또 2-3개월 늦춰지는 게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자체와 한전간 통큰 '재정지원 이행협약'으로 공대설립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대학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확정 등을 한발짝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야당 또한 최근 '한전공대 추진을 늦춰야 한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도 한전이 공대설립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설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누적 적자 증가로 어려움을 클 것 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전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2,080억원 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최대 6,29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폐지 확정과 수사결과에 따라 강원도 산불피해 보상금으로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어 한전공대 설립이 순연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전의 마스터플랜 확정에 맞춰 공대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야 될 지자체에서는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안이 최대한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미애 기자

"이젠 축제다" 수영대회 문화행사 풍성

모스크바 국립 오케스트라 22일 5·18광장서 공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등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19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수영대회 개막 D-20일을 맞는 오는 22일 오후 8시 5·18민주광장에서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광주 공연을 개최한다.

러시아에서 지휘자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노태철 교수(아쿠티아 음악원 부총장)가 지휘를 맡아 한국인에게 익숙한 차이콥스키를 시작으로 베르디 등의 명곡을 선보인다.

노 지휘자는 1996년 동양인 최초로 오스트리아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역임했다.

장르와 형식을 초월한 거리축제, 프린지 페스티

벌도 함께 선보인다.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5·18민주광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음악, 마임, 버스킹,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영대회 기간에도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이어진다. 7월 11일 오후 9시부터 전야제 행사로 케이팝(K-POP)이 함께하는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대회 기간 31일 동안 경기장과 선수촌, 5·18 민주광장 주 무대에서는 '물, 빛, 그리고 흥(興)'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매일 선보인다. 전국에서 모인 96개 팀의 시민 공연예술가들의 풍성한 공연을 남부대, 선수촌 등에 설치된 공연무대에서 즐길 수 있다. /황애란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氣의고장 영암

영암 백리 벚꽃길

영암 구림전통마을

영암 대웅보전

영산강 일출

30th Anniversary logo